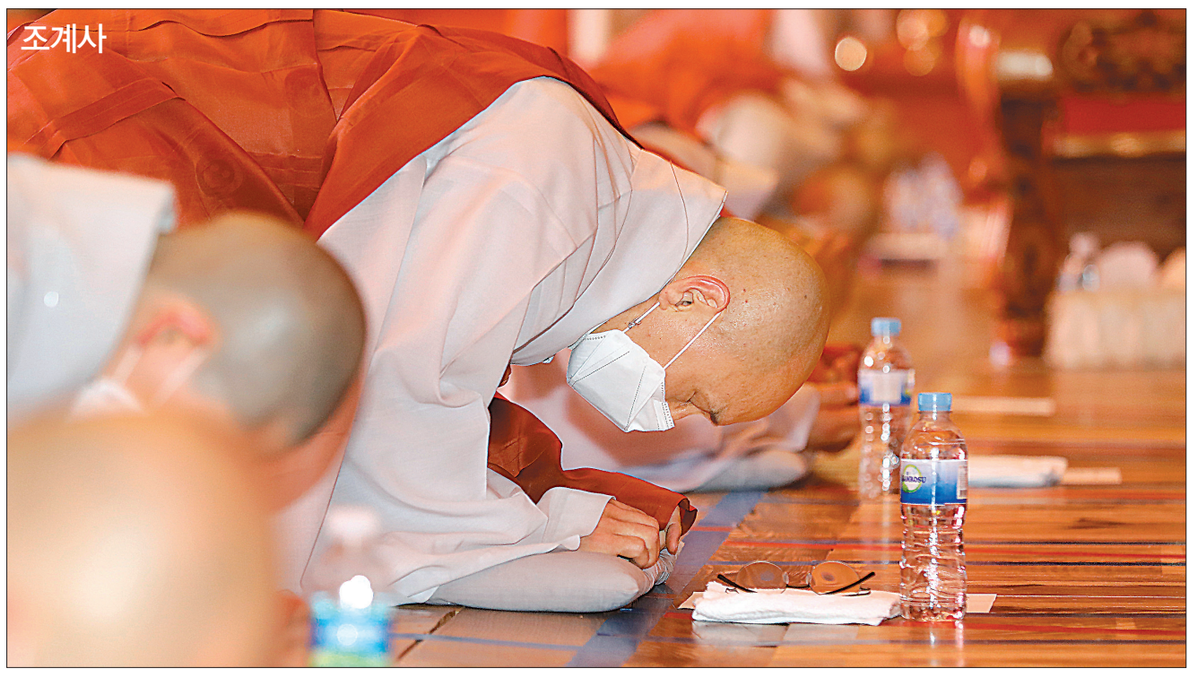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12일)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내장사 방화 참회합니다 예비 승려의 방화로 밝혀진 내장사 화재 사건에 대해 조계종과 해당 본사인 선운사의 참회가 이어지고 있다. 선운사 주최로 3월 14일 내장사서 교구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회 법회를 봉행하고 100일 참회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은 3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회의 1080배를 올렸다. 모두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참회했다. 사진 왼쪽은 3월 15일 열린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의 참회 1080배 모습. 사진 오른쪽은 3월 14일 봉행된 선운사 참회 법회. **사진=박재완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장사 화재 참회 정진…"자성 계기 삼겠다"

조계종 · 선운사, 충격 딛고 수습에 만전

3월 15일 교역직 스님 50여명
서울 조계사에서 1080배 정진
선운사, 100일 참회정진 돌입

송지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장사 화재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조계종과 선운사가 참회정진을 이어가며 "승가공동체의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내장사 화재 참회를 위한 1080배 정진기도'를 진행했다. 이날 기도정진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등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 부실장 스님 등 소임을 맡고 있는 교역직 스님 50여명이 참석해 내장사 사건에 대한 참회의 뜻을 모아냈다.

스님들은 기도에 앞서 '내장사 대웅전 화재 참회 발원문'을 낭독하고 "1400년 유구한 역사의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한다"며 이번 사건을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승가공동체의 공업으로 보고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에서 스님들은 "내장사 대웅전이 화마에 휩싸일 때 저희들 또한 함께 불타올랐고 타다 남은 앙상한 서까래를 보면서 저희들의 가슴 또한 잿더미가 됐다"며 "잠시나마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잘못일 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리석음에 빠졌다"고 참회했다.

이는 내장사 화재의 원인이 사중에 머물던 예비승려의 방화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조계종이 개인이 아닌 승가공동체 차원에서 참회정진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스님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그 스님 역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한 사람의 허물은 전체의 허물이고 한사람의 훌륭함은 전체의 훌륭함"이라며 "화합과 청정한 정진은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 지향인만큼, 나와 남을 별개로 분리하는 미혹한 분별심을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들은 이번 사건을 점검의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스님들은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해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겠다"며 "나아가 내장사 대웅전을 태운 불길을 우리 공동체의 업장을 사르는 연비의 불꽃으로 삼고 탐진치로 지어진 중생세간을 태우는 무량광의 지혜불꽃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또 "온몸을 던지는 참회정진으로 주춧돌을 놓고 청정한 정진으로 기둥을 삼으며 자비희사 무량심으로 대들보를 얹고 온 세상을 덮는 보살행을 지붕으로 하여 보리도량을 건립하겠다"며 "또 스스로 도량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도량으로 이뤄 법신 편만의 중증무진 아란야 법보리도량을 구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에 앞선 3월 14일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도 본말사 사부대중이 내장사 화재현장 앞 마당에 모여 참회법회를 봉행했다. 명종5타와 함께 열린 이날 법회는 법경 스님과 도심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백팔참회, 석가모니불 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7독,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부대중은 108대참회문을 낭독한데 이어, 참회의 절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봉독하며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을 지켜내지 못한 승가공동체의 공업을 참회하고 내장사 대웅전복원의 원력을 다짐했다.

대중들은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역대 선조사 스님들이 일군 만중생의 귀의처 천년가람을 지키지 못한 죄업이 가볍지 않고 탐진치 삼독을 여의지 못한 채 살아온 출가공동체의 부끄러움 또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참담함을 전했다.

이어 "어제의 일을 거울삼아 지계청정과 광도중생의 서원을 세우고자 한다"며 "출가 본연의 자세를 되짚고 진실로써 승풍을 새롭게 하며 내딛는 발걸음 발걸음에 문수지혜와 보현행원을 담겠다"고 서원했다.

선운사는 이날 법회를 시작으로 100일간 참회기도정진에 돌입했다. 또 대책위를 구성해 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구대중공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스스로에 향하는 서릿발과도 같은 참회죽비로 출가 초발심의 서원을 되새겨 부처님께 지은 씻을 수 없는 악업을 참회한다.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해 교구대중이 화합으로 오늘의 아픔을 하루속히 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17일 법륭사에 '진우시민선방'을 개원했다.

재가불자 마음 밝힐 '진우시민선방' 개원

비구니회, 17일 개원법회… 스님 위한 법룡선원도

재가불자들의 마음을 밝힐 '진우시민선방'이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이 산철에도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법룡선원'도 가동을 시작해 출 · 재가 수행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17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지하 1층에서 '진우시민선방'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진우시민선방은 방부를 들인 재가불자들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열린 수행공간으로 운영되며, 성본 스님이 선원장 소임을, 법룡사 총무 혜인 스님이 입승을 맡아 체계적인 수행 지도도 이어갈 예정이다.

진우시민선방은 법룡사 지하 1층,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 결과물이다. 지하에 위치하지만 자연채광 기술을 도입하고 냉난방 시스템까지 완비해 수행에 적합한 환경으로 꾸며졌다. 선방 한가운데에는 모든 각도에서 예경을 드릴 수 있는 석불상이 봉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대방과 남 · 여 탈의실도 마련해 불자들이 편하게 선방을 찾아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갖췄다.

개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전 9시와 오후 2시 입선,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방선, 전후 시간에는 자유입선 및 자율정진을 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소참법문이, 매주 월요일은 휴원한다. 자체 청규도 제정됐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법룡선원도 이날 가동을 시작했다. 매년 2차례의 안거기간 중 선방에 방부를 들이기 어려운 각 사찰 소임자 스님들은 물론, 산철에도 스님들이 수행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회장 본각 스님은 "진우(眞宇)는 시민선방 리모델링 기금을 기탁하신 노스님의 법명인 동시에 참다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2층에 마련된 법룡선원과 함께, 스님은 스님대로 재가불자는 재가불자대로 수행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진우시민선방 선원장 성본 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선사이자 수행자로서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본 스님은 "진우시민선방과 인연을 맺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를 위한 수행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깨달음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공부에 매진해 달라"며 "진우시민선방과 법룡선원이 함께 정진해 나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